

5.2 벙커

Department Press Briefing - April 21, 2022

On China, President Xi Jinping today spoke about his proposal for a global security initiative. And he's talking about this invoking the principle of indivisible security, obviously a Kremlin-favorite phrase. I wonder if you had any response to that, and in particular are you concerned that this is something that China could use in relation to Taiwan or the South China Sea to push back on actions by the U.S. and those - or support from the U.S. for countries in China's neighborhood and potentially act in a similar way to how Russia has acted in Europe?

MR PRICE: Well, we did take note of the remarks, also took note of the reference to indivisible security, which is interesting in that we have continued to see the PRC parrot some of what we have heard coming from the Kremlin. This apparently applies to the concept of indivisible security. The Kremlin continues to maintain that attacking another country in an unjustified, unprovoked way, in a brutal manner somehow bolsters security in the region. It is unclear to us how what the Kremlin is doing in Ukraine is at all related to any concept of security, including that of indivisible security.

But there are broader principles at play, and we've always said that this is about Russia's war against Ukraine, but at the same time it is about the principles and the rules that, over the course of now seven decades, have governed the international system. This is about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has ushered in the most peaceful and prosperous period in modern history. And along with likeminded partners around the world, this is a system that we helped build. It's a system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United States included, continues to help shape. And it's a system built on shared values, including respect for human rights, sovereignty, self-determination, those principles that are meant to undergird and to fuel our ability to address our biggest global challenges.

So especially as we face threats from Russia's unprovoked war against Ukraine, COVID-19, and climate change, we are committed to upholding the very system that certa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 and Russia and the PRC are among them - seek to challenge and in certain instances seek to tear down and even destroy

시진핑 주석은 오늘 중국에 대해 세계 안보 구상에 대한 자신의 제안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그는 분리할 수 없는 안보의 원칙을 환기시키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분명히 크렘린이 좋아하는 문구죠. 나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고, 특히 당신은 이것이 미국과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중국이 미국과 중국의 이웃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나 잠재적으로 유럽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우려하는가?

프라이스 씨: 음, 우리는 그 발언에 주목했고, 또한 분리할 수 없는 안보에 대한 언급도 주목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크렘린에서 들은 것 중 일부를 계속해서 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것은 분명히 분리할 수 없는 보안의 개념에 적용된다. 크렘린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정당하지 않고 이유 없이 잔인하게 공격하는 것이 어떻게든 이 지역의 안보를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크렘린이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일이 분리할 수 없는 안보의 개념을 포함한 안보의 개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다.

-> 미국은 그 발언에 주목하며 '분리할 수 없는 안보에 대한 언급도 주목함. 러시아를 크렘린이라고 비유적으로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이 러시아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짐

하지만 더 광범위한 원칙들이 작용하고 있고, 우리는 항상 이것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70년 동안 국제 시스템을 지배해 온 원칙과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평화롭고 번영한 시대를 이끈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을 도운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계속해서 형성을 돕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권, 주권, 자기결정권,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세계적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원칙들을 포함한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우리가 우크라이나, COVID-19,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러시아의 이유 없는 전쟁의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우리는 세계의 특정 국가들과 러시아와 중국 공산당이 도전하고 특정 경우에는 파괴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바로 그 시스템을 지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분리할 수 없는 안보' 라는 개념 자체에 모순과 의문을 가짐. 러시아의 전쟁이 이유없는 전쟁이라고 칭하며, 국제 시스템과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를 비유적으로 비판함.